



표지사진 :

서울 인사동, 100일 릴레이 모금에 전시된 사진을 관심있게 바라보는 한 할아버지.

JTS 통권 49호 2004년 9·10월

펴낸날 : 2004. 9. 1

펴낸이 : 유 수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김경희, 류희원,
최정연, 이미경, 김희수, 윤미옥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특집 _ 2004년 백일 릴레이 모금

- 4 역사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앞선 사람
- 7 모금 현장스케치

인도 등계스와리 소식

- 12 저는 더 필요한 곳에 가고 싶어요
- 16 내 귀가 다 시원하다!

지금 북한에선

- 20 우리는 지금 라선개발기금 모으기에 한창입니다
- 23 아름다운 이야기 둘

아프가니스탄 소식

- 25 내 나라, 아프가니스탄
- 27 난민캠프 교사들 수련을 진행하면서

따뜻한 이웃

- 29 북한을 공부하는 일본인, PeaceNowKoreaJapan
- 32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활동보고 및 안내

- 35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북한지원사업
아프가니스탄 지원 및 현지활동
국내소식
- 38 신규회원(개인, 단체) 명단
- 39 북한개발 후원인 명단
- 41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및 거리모금 현황

역사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앞선 사람

법륜스님 | JTS 이사장

지난 8월 9일 2004년 100일 릴레이 모금이 시작되었다. 작년에 이어 세 번째를 맞는 100일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하기에 앞서 JTS 이사장이신 법륜스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았다.

저희들이 작년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는 취지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릴레이 모금을 해서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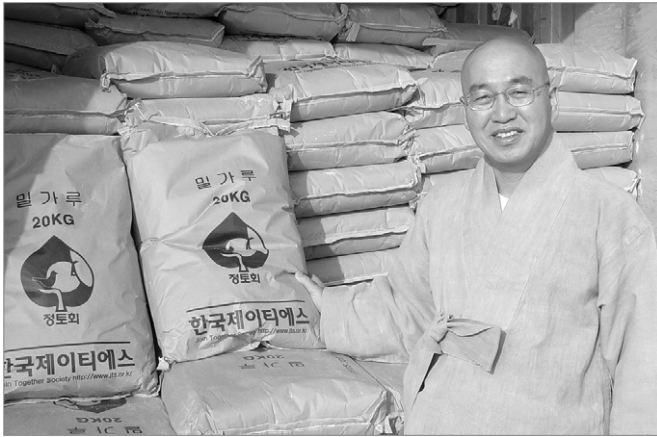
6천만원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돈이지만 인도나 북한에서는 정말로 큰 돈입니다. 아이들의 한 끼 급식이 150원, 예방접종이나 간단한 치료비가 평균 2~300원 정도 되니 훨씬 적은 돈으로 죽어가는 생명, 고통 받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노트 한권에 100원, 볼펜 하나에 70~80원하니 이렇게 계산해 볼 때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적은 돈이 지구 저편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 될 때에는 정말 큰 선물 보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를 여행할 한다면 정말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지구 저편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도 나눠 줄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끝나기 전까지 100일간 릴레이 모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호대상으로 삼는 나라는 소위 기아·질병·문맹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기습으로 다가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고통 받고 있는 현장을 직접 가 본다면 저는 누구나 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생활비를 절약하여 돕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하나에 천원, 이천원 주고는 쉽게 사먹고, 조금 피곤하다고 드링크제 하나는 쉽게 사먹어도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돕는 마음을 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돈을 얼마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용천역 폭발사고현장에
밀가루 100톤을
긴급지원하는 모습

살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구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 지를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을 돈, 음료수 하나 사먹을 돈만이라도 가볍게 낼 수 있다면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모금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복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는 것이 되고, 돈을 낸 사람에게도 복을 짓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거리에서 모금을 하다보면 외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눈썹만큼도 섭섭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모금을 안했다면 그들은 거절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내가 그들 앞에 불쑥 나타나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욕을 하면 내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금을 하면 욕을 듣고도 내가 미안한 마음을 낼 수 있으니 이것은 나에게 또한 큰 수행이 됩니다. 주고 안주고 칭찬하고 욕하고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걸림 없는 삶입니다. 나에게 수행이 되고 남에게 복을 주는 기회가 되고 또 지구 저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거리모금입니다.

이번 100일 릴레이 모금은 북한 개발·구호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다. 지금부터 4~50년 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강해서 우리는 북한의 침공을 막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남한도 살기가 좋아지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세력이 비슷해졌습니다. 경쟁하면서 서로 이기려고 다투지요. 그러다가 20년 전부터는 북한 경제가 붕괴가 되기 시작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고립

되면서 북한은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95년도 이후에는 굶기야 수백만명이 굶어죽는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북한은 옛날의 북한이 아닙니다. 겨우 생존을 유지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정치가들은 권력을 유지하기에 급급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권력자들의 행위만을 보고 북한 전체를 외면한다면 북한에 살고 있는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긴급사태 때에는 좋다, 나쁘다를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은 현재 자연과 산업시설 및 사회 간접자본이 전반적으로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긴급구호도 해야 되지만 이 긴급구호만 가지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들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어려우니 우리가 긴급구호를 하면서도 최소한이나마 자립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조금 도와주고 마는 그런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필요한 것들을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어차피 우리가 건설해야 될 일을 미리 해 나가자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북한이 붕괴되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붕괴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붕괴된 이후를 대비해서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 막연한 적대감으로 인해 인도나 아프리카를 돕자 하는 것은 쉬운데 북한을 돕자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 아닙니까?

‘북한을 건설하자’ 이것이 지금은 생소하지만 이제는 돕자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 벽을 깨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건설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벽을 뚫어줌으로써 앞으로 국가가 예산을 세워 건설을 해나가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장벽을 넘는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오려면 늘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항은 그렇게 큰 저항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저항을 예상하고 우리가 이것을 뛰어 넘어 봅시다. 그래서 또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여러분이야말로 역사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앞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100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수행에 있어서 좋은 체험을 하는 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첫 출발이니 약간 부담이 되고,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고 또 두 달이 지나고 100일이 끝나갈 무렵에 돌아보면 ‘남을 돕는다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구나. 내가 인생의 큰 장벽을 뛰어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일단 해보고 검토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런 명심문으로 100일 릴레이 모금을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전국은 지금 36.5 °C

JTS와 정토회 전국법당이 함께하는 100일 릴레이 모금이 시작되었다. 올해로 3회를 맞고 있는 100일 릴레이 모금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북한, 인도, 아프간 어린이를 돕고자 마련되었으며, 지난 8월 9일을 시작으로 11월 15일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100일 동안 진행된다. 10년만에 찾아온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광주, 대구, 대전, 마산, 부산, 울산, 제천, 청주, 정읍까지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캠페인 소식을 한데 모아 보았다.

전국 모금일정

지역(법당)	시작일	종료일	일수	캠페인(모금)장소	문의
부산(동래)	8/9	8/29	21일	부산역 / 동래전철역 동래 메가마트앞	051-557-2746
부산(해운대)	8/30	9/5	7일	해운대	051-747-9997
마산	8/9	11/15	100일	마산법당앞	055-247-8991
대구	8/9	11/15	100일	동대구역 동성로	053-744-3025
울산	9/30	10/6	7일	각 구별 순회	052-245-8995
광주	8/9	11/15	100일	충장로 / 쌍암공원	062-511-8990
정읍	10/7	10/11	4일	정읍 명동의류 앞	019-308-2731
대전	8/9	11/15	100일	으능정미, 충대후문	042-253-8990
청주	10/12	10/18	7일	충대 중문 / 성안길	043-284-5951
제천	10/19	10/22	4일	제천 차 없는 거리	016-9226-0083
서울	10/26	11/15	21일	인사동 / 남부터미널	02-587-8995
워싱턴/뉴욕	주 1회		13일		

부산 해운대

염윤희님

부산 해운대 지역은 8월 30일, 백일 릴레이 거리모금 시작하여 7일간 캠페인을 벌여나 갈 예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금함을 들고 거리 모금을 하고 계실 여러 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도 해운대 바닷가로 나가서 모금을 하며 힘을 기르고 있다. 백일 릴레이 거리모금 기간동안 '나를 돌아 볼 수 있는 수행'의 계기가 되기를 두손 모아 발원한다.

부산 동래

김혜레님

입추가 지나고 오늘이 말복! 짬뽕 날씨 속에서도 100일 릴레이 모금을 시작했다. 해운대 지역에서도 원정오시고 오늘 처음 할머니를 따라 나선 이정표 학생까지 한분 한분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19명이 모금통을 들고 나갔다. 그냥 서 있기도 힘들고 짜증나는 날씨지만 법륜스님의 '그냥 한번 해 본다'는 말씀을 명심문 삼아 '복한 어린이를 도웁시다. 굶주리는 어린이를 도웁시다!'를 외치며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 송부순 할머니의 손자 이정표군이 모금하는 모습

울산

백선영님

전국이 입재하던 날인 8월 9일, 울산법당에서도 7명이 모여 100일 거리모금을 시작했다. 많지 않은 사람이지만 백사람이 부럽지 않았다.

모금이 끝나면 매번 나누기를 하기로 했다. 나누기를 하다보면 그날의 어설픈 모금일지라도 소중한 수행의 밑거름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금해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어 함께 하려고 한다. 야간에 일주일동안은 매일 모금을 할 계획이어서 그야말로 최소 일주일엔 보살로 살아질 것 같다. 울산지역 일주일 동안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각 구별로 한번씩 찾아가 캠페인과 모금을 할 생각이다.



모금장소 _ 울산대학교 정문-남구 / 롯데백화점 광장-남구 / 현대자동차 문화회관-동구 또는 한마음 회관-북구 / 문수산 문수사 입구-남구 / 성남동-중구 / 현대백화점(동구점)&현대예술관-동구 / 공업탑

대구

김옥자님

작년에 100일을 이어가면서 조금 힘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 3차 거리모금을 시작하면서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다. 낮에는 주로 동대구역에서 캠페인을 하고 금, 토 이들은 동성로로 이어갈 예정이다. 100일 모두 참석하겠다고 뜻을 세운 분들도 계시니 우리 대구 100일 모금은 순풍에 돛 단 듯이 탄탄대로로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속 시원히 맘을 흘릴 수 있어 좋다. 맘을 너무 많이 흘려 힘이 들면 서로의 따뜻한 미소로 한번 더 마음을 내어본다. 발걸음이 빠르면 거기에 맞추어 우리들의 뜻을 전해본다.



청주

이점순님

같이 모금을 하러가자는 말씀에 '그러죠' 하면서 속마음은 또 부담으로 다가왔다. 마음은 이번 백일 모금을 열심히 해보리라 다짐했었는데 너무 덩다는 핑계만 앞섰다. 약간의 마음의 부담은 여전했으나 집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불안한 마음은 사라졌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거리에 사람들이 평일보다 적었다. 또 시간도 평소보다 일찍 시작해서 그런가 너무 한산한 것 같다. 그래도 열심히 하자, 나와서 하는데 의의가 있지,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해도 도무지 신이나지 않는 것은 욕심 때문일까?

짜증내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모금통을 보면서 피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나를 살펴본다. 예전엔 나도 그랬잖아 하며 그들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미소를 짓는다. 마음속으로 명심문을 만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이십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니 한결 마음도 가벼웠다.

마산

유애경님

우리 마산은 8월 9일을 시작으로 100일 동안의 거리모금에 참여해 지금도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다. 낮에는 '북한은 내나라, 우리가 건설하자'는 모토를 가지고 법당 앞에서 캠페인과 거리모금을 함께하고 있고 밤에는 2인 1조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모금을 하고 있다.

오늘은 태풍 뒤엎이라 캠페인을 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오후에 날씨가 개어 모금을 잘 끝낼 수 있었다. 100일을 생각하면 조금은 막막한 느낌이 들지만 그냥 하루하루 모금 한다 생각하니 조금은 가벼워진다.

광주

엄창수님

8월 9일 오후 5시에 광주에서도 입제식을 갖고 쌍암공원에서 첫 모금을 시작했다. 오랜 만에 하는 모금이라 약간의 설레는 마음, 하기 싫은 마음들을 보면서 모금을 시작했지만 뜨거운 날씨 때문인지 많은 액수가 모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찌 한술 밥에 배부르랴! 시작이 반이라 했으니 지옥중생이 한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으로 지구상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없어지는 날을 바라며 모금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본다.

8월 17일, 초등학생 7명이 모금에 동참했다. 고사리 손으로 모금함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다. 모금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먼 훗날 어른이 되어도 모금했던 마음을 잊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울

김희수님

릴레이모금 입제식을 마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며 기운을 들먹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아가며 해 보라는 스님의 말씀대로 모금을 나갔다.

시간이 갈수록 빨간 고추 같이 얼굴이 익어갔지만 모금후의 모습들은 너무도 환한 아름다운 모습들이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돌아와 나누기를 하면서 정말 모금하길 잘했다고 맞장구들을 쳤다. 어디서 이런 경험을 같이 공유할 도반들을 이렇게 여럿 만날 수 있을까. 감사, 감사한 마음이 뭉실 뭉실 올라오는 하루였다.



미국(뉴욕 · 워싱턴)

김순영님

미국에서도 뉴욕정토회 총무님의 제안으로 지난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북한돕기 거리모금을 시작하였다. 첫 주였던 8월 3일에는 세사람이 뉴욕 브로드웨이 32번가 근처에서 거리모금을 하였다. 많은 동포들의 호응으로 첫날 \$608.70을 모금하였다.

뉴욕정토회 이연순님께서는 일주일에 한번은 수행삼아 거리모금을 하시겠다고 한다.

워싱턴에서도 거리모금을 9월부터 시작해볼 생각이다.



잠깐 거리모금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대구의 생생한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용사들 4일째 / 8.13.

법회날이건만 모금 입재법문도 한번 더 봤건만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버리고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몇 명이 진국 아니겠습니까..

얼음병 한개와 또 큰 물병 한개까지 챙겨서 변함없이 동대구역 출~발. 모금시작하고 5분도 안되어서 벌써 용사들 얼굴이 빨갛게 익어갑니다. 20분 지났으려나? 신고가 들어왔다면 경찰관 2명이 옵니다. 아 또 오는 겁어야하나 하는 생각이 스치고 경찰들을 맞이합니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예. 하루에 한끼를 못 먹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어찌구 저찌구 이궁 저궁...”

그분들은 우리들 이야기를 듣고 전단지도 보시더니 ‘도와주지는 못해도 왜 신고를 했지? 요새도 이런 거 하는데 불만인 사람이 있다’ 하십니다. 그분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신고 하신 분 잘 설득 해 볼게요.’ 하고 오히려 미안한 표정을 하고 책과 전단지 종류별로 한권씩 가져가십니다.

너무도 맘써 좋은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이 몽글.

돌아오는 차안에서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은 모금도 안 되고 날씨는 무진장 덥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했다는 것에 기분 좋다는 용사들의 나누기. 6명의 용사들의 하루였습니다.



▲ 젖은 돈을 하나하나 종이위에 올려 말리고 있다.

돈 구경하러 오이소~~ / 8.15.

오늘은 세명의 역전의 용사 출~발. 도착해서 상 펴고 현수막 걸고 명심문 외우고 화이팅까지 외치고 모금시작 5분. 갑자기 굶은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후드드드 마구 쏟아집니다. 거기다 바람까지 합세하니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마이크 비맛을가와 방수망 씌우고 그 위에도 창모자 3개 덧씌우고 다른 용사들은 우산을 쓰고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분들께 모금을 합니다. 근디 갑자기 왜 날벼락~

물아치는 바람에 상이 뒤집어지고 아크릴로 만든 모금통이 밀려 떨어지고 바로세우려니 힘이 딸리고 해서 다른 용사들 불러 함께 일으켜 세우고 상 한개와 현수막 한개는 접고 조금 작게 우리들의 모금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조금 그치는가 싶더니 다시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모금함엔 돈보다 빗물이 소리 없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시간 동안 동대구역 돈 다 쓸어 모으면서 속옷까지 다 젖었지만 또 혼자서 거의 매일 모금하시는 보살님께 바통 터치해주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나누기. 그런데 힘들었다는 사람 하나 없으니..

법당에 도착해서 돈을 바닥에 쏟아 부으니 물만 돈반입니다. 젖은 현수막 전단지 어깨띠 모자 등을 널으면서 젖은 돈을 펴면서 ‘와 그래도 많이 했다 그치’ 그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기분 좋게 행복해합니다.

돈 좋아 하는 우리 왕 보살님 젖은 돈을 널으면서도 환한 천사의 얼굴입니다.

3명의 역전의 용사들의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저는 더 필요한 곳에 가고 싶어요

김혜원 | 인도JTS 실무자

맑은 얼굴로 정토회관의 공양간에서 밥을 짓던 김혜원님이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더니 '아름다운 세상'의 아프카니스탄 꼭지에 얼굴이 살짝 보였다. 인도자원활동가들이 아프카니스탄을 방문해 일을 거들고 있는 모습으로, 인도에 있는 저는 벌써 1년이 넘었고, 앞으로 2년 더 봉사할 예정이라는 김혜원님의 지나간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인도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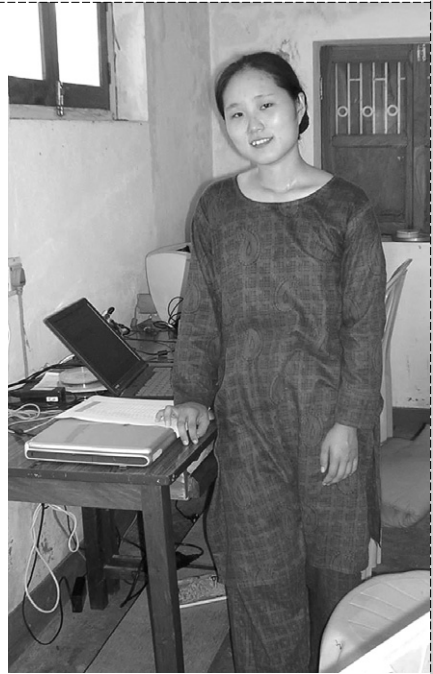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게 혹은 적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면서 삶에 동요를 일으키는 계기를 갖게 되는데요, 지금 김혜원님이 자원활동가의 삶을 사는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던 저에게 변화의 계기는 대학교에 들어오면서였습니다. 대학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역사, 사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즈음에 법륜스님의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너무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사람이 죽어 가는데 이 일보다 우선인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가진 돈과 시간을 조금 내려놓고 잠시만 함께 한다면 이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북한 상황이나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지만 '어떻게 저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살 수 있을까'란 감동과 함께,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작은 힘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구나' 라구요.

▶대학생이었던 김혜원님이 인사동과 명동에서 모금활동도 꽤 열심히 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했을 텐데 힘들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생활동안 학교에서 거리에서 모금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고 그 돈을 모아 모금하시던 거사님,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 3시간 씩 모금활동을 하셨던 직장인 분들, 일본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힘들어하고 무시당하면서도 같은 동포임을 행복해하며 열심히 했던 재일 교포들, 그럴 수 있었을까 싶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했습니다. 매주 그들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 한 끼를 굶으며 배고프기도 하고, 모금으로 몸이 힘들기도 했지만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들어 마음속의 기쁨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가족에 대한 아프고도 따뜻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서로 헤어지셨습니

다. 그래서 언니와 둘이 참 외롭고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북한동포돕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난민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 형제를 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북한동포돕기를 하며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난에 대한 아픔들을 오히려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교대를 졸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쉽게 교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고 또 안정적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여성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교대를 졸업했는데 왜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도 받았습니다. 그렇게도 딸이 교사가 되기를 바라셨던 어머니의 말씀을 뿌리치고 돌아올 때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교육현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저는 더



필요한 곳에 가고 싶어요'란 말을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인도에 간 것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현재 맡은 일은?

저는 인도에 작년 6월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국 업무를 하고 있고 회계, 재정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점심 급식 관리와 시장 보는 일을 현지 스텝과 함께 하고 있고, 학교 상급생 미술 선생님이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여기는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는 지방도 있었어요. 얼마나 덥던지... 인도에 비하면 견딜만한 날씨였겠지만요. 역시 인도에서도 더위 때문에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하면서 힘들었던 적, 즐거웠던 순간, 보람을 느끼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인도에서 가장 더운 시기는 5월 무렵입니다. 밖에 걸어놓은 온도계가 45도에서 48도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주로 사무실 업무라 그늘진 곳에 있는데도 열기에 머리끝에서 온몸으로 땀이 주르르 내려옵니다. 참 힘들어하며 헉헉대다가 문득 생각해보면 큰 가방을 메고 산을 넘어 학교까지 오는 아이들과 뻑뻑한 교실에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을 선생님들, 그리고 그 불볕더위에 모래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있을 노동자들과 청소년 노동학교 학생들을 떠올리며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위에 질세라 노동자들은 툼툼이 쉬기도 하지만 다들 그 더위 속에서도 참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급식은 총 405명의 학생들과 수자타 유치원 180여명 노동자, 기술학교, 노동학교, 스텝들 총 80여명에게 제공됩니다. 너무 더운 3개월쯤은 간단히 인도식 미숫가루나 콩, 과자 등을 주고, 보통은 밥과 카레를 줍니다. 3개월은 학생들에게는 1인당 4루

피 (한국 돈 120원)나 밥은 6루피 (180원)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영 유치원 총 750여명 아이들에게는 점심으로 콩과 튀긴 쌀 섞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2루피 (60원)이 안되는 돈입니다.

예전에 모금할 때는 '150원이면 한 아이에게 점심 값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곤 했는데 직접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합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접시 가득 밥을 담아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집에 가도 다른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가 불룩 나올 정도로 빵빵해져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수자타에 다니는 아이들은 나은 편입니다. 인도 거리 곳곳에는 특히 시장에서나 가게에서는 일하는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가게에서도 열살 남짓한 아이들이 거의 모든 일을 합니다. 곡식 파는 집에서도 자신의 키보다 몸무게 보다 무거운 부대를 등에 지고 나르는 일을 합니다. 제 3세계에서는 가장 힘이 약한 여자와 아동이 소외 받고 노동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예쁜 옷을 입고 사랑 받을 아이들이 이곳에선 거의 찢어진 옷에 짐을 나르느라 다 터진 손으로 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수자타와 동계스와리 사람들 그리고 김혜원님의 모습을 간단하게 스케치해 주세요.

수자타는 인도에서도 가난하고도 가난한 시골의 마을에 있습니다. 동계스와리란 뜻이 버려진 땅이라고 합니다. 그 버려진 땅에 와서 살 수 밖에 없었던 계급 낮고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음을, 참 따뜻하구나하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을 가면 없는 살림이지만 어김없이 손을 끌고 밥을 먹고 가리는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어 감을 보게 됩니다. 6학년이 되면 유치원 교사가 되고 병원에서 돕는 일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개구쟁이 학생이었는데, 자신의 학생들, 환자들 앞에서는 너무나 멋진 선생님이, 스텝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좋은 것을 사기 위해 시장을 여러 번 돌고, 상인들과 열심히 협상하고, 학생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좋게 만드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우리 인도 스텝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참 보람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취재 · 정리 | 고정희

내 귀가 다 시원하다!

이유진 | 원광대 의대 본과 2학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대사협)에서 주최하는 제 2차 인도해외봉사단이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인도 JTS의 수자타아카데미와 등게스와리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총 25명의 대학생과 지도교수님, 의료팀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의료, 교육, 공사, 목욕 등으로 분야를 나눠 마을을 돌며 진료하고, 교육과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의료팀은 7개 마을을 돌며 하루 130여명 이상의 환자를 보고, 간단한 수술과 치료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의료봉사활동을 한 이유진님의 소감을 들어본다.

의대에 들어가게 되면 꼭 의료봉사를 해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은 나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열정과 무모하리만큼 용감하게도 병원 내 의료팀을 조직해서 의료봉사를 가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준비기간동안 좀처럼 쉽게 일이 풀리질 않았다. 뻑뻑하게 돌아가는 수업일정과 스트레스 속에서 작년 키르키즈스탄의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를 준비한 뒤 외과 과장님을 찾아갔다. 그 분은 평소 해외 의료봉사를 정기적으로 다니시기에 나의 열정을 이해해 주실 것 같았고, 의료팀을 조직해 함께 해 주실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그러나 교수님은 이미 다른 곳의 해외봉사가 약속된 상태였다. 의료팀이 조직되기 위해서는 교수님 한 분이 꼭 팀장으로 합류해야 했기 때문에 난관 끝에 소아과 윤향식 교수님께 부탁드렸다. 무사히 의료팀이 조직되었고 교수님 외 외과 레지던트인 박재호 선생님과 이한범 선생님 그리고 본과 2학년인 나로 이루어졌다.

출발 전까지 몇 번의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작년의 인도 의료봉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약회사에 의약품의 협조를 구하고 원광대학교 병원에 협조를 구했다. 우리 의료팀은 인도 등게스와리 지역에는 어떤 풍토병이 많고 주로 어떤 질환으로 환자들이 몰리는지 어떤 의료 시술이 필요하게 될지 어떤 약품이 중점적으로 쓰이게 될 지에 대해

파악하기에 몰두했고 그에 따른 의약품 준비를 위해 힘을 썼다.

2주간의 대사협 주관 인도에서의 봉사활동, 그 중 5일간의 동계스와리에서의 의료 봉사가 이루어졌다. 동계스와리에는 인도의 불가촉천민을 위해 JTS가 설립한 무료병원, 지바카 병원이 있었다. 한국 사람이 인도의 오지에서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세계 어느 곳으로부터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 곳을 불심으로, 또 따뜻한 인간애로 감싸고 있는 JTS였다.

동계스와리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의료봉사가 시작되었다. 우리 의료팀은 내과파트를 운항석 교수님이 외과파트를 박재호, 이한범 선생님이 맡기로 하였고 나는 내과와 외과 파트에서 진단이 나면 그 진단을 바탕으로 약을 조제하는 약국 장을 맡게 되었다. 마을을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부산을 떨어 의료기구와 약 짐을 싸야했다. 작은 지프에 진료용 테이블과 의자까지 가득 싣고 덜컥거리는 인도의 시골길을 달려 마을에 도착하면 부산하게 약짐을 풀어 약을 정리하고 조제를 위한 테이블 세팅부터 했다. 예상했던 대로 첫날부터 일은 고되었다. 인도의 찌는 듯한 날씨에 정신없이 몰려드는 환자들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내과와 외과 파트 양쪽에서 내려지는 진단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에는 나 혼자만으로는 손이 부족했다. 숨 돌릴 틈도, 고정된 자세로 굳어 가는 몸 한번 풀어주지 못한 채 약을 조제해도 진료용지는 계속 조제테이블에 쌓여져만 갔다. 진료를 보는 교수님, 선생님들과 함께 저녁때 나누기를 하면서 첫날 의료봉사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진료방식을 수정하기도 하고 마음가짐을 다잡기도 하였다.

환자들은 주로 외과적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지인들의 생활습관과 부족한 물 때문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오래 지내온 인도인들은 자갈이라는 피부 질환과 귀와 관련된 질환이 많았다. 귀에 벌레가 수 십 마리가 들어찼는데도 심각성을 알지 못해서인지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던 건지 너무도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었다. 벌레는 귀안에서 죽어 썩어버리면서 염증을 만들었고 그 염증이 통증을 유발하고 나서야 의료팀을 찾은 것이다. 그나마도 의료팀이 마을까지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아픈 것도 운명으로 여기고 참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중이염, 외이도염에 시달리는 현지인들의 귓속을 파내고 소독하고 치료해주신 외과파트의 선생님들은 '내 귀가 다 시원하다' 하시면서 만족과 봉사의 기쁨을 표하셨다.

자감은 우리가 아는 굵은 상처와 비슷한데 곁에 드러난 환부 뿐 아니라 피부 깊숙이 자리 잡아 광범위하게 고름을 안고 있는 것이라 외과적 시술이 꼭 필요한 경우이다. 자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소마취가 이루어졌지만 깊은 곳의 고름을 짜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환자들도 통증을 호소하며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하였다. 시술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바카 병원을 꼭 다시 방문할 것을 당부하여 사후처치에도 많은 배려를 하신 선생님들이었다. 어느 날에는 한쪽 유방에 크게 고름이 잡혀있는 여자 환자가 의료진을 찾아왔다. 그대로 두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중하였다. 인체에 생긴 고름은 무익하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에 재생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주어야 하며 절대로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여자환자는 시술을 받으면서 통증으로 두 번이나 실신을 하였다. 그 날 시술을 위해 가져간 거즈를 다 써버릴 정도로 많은 고름이 나왔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다행히 무사히 치료를 끝낼 수 있었다. 어느 마을에서는 나무에서 떨어져 관절이 탈구된 어린이 환자가 있었는데 걷지도 못하였고 관절을 엮나간 뼈가 그대로 자라게 되면 원상회복하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고 결국엔 불구가 될 형편이었다. 외과 담당인 선생님들이라 정형외과 쪽의 경험은 많이 없었을 텐데도 박재호 선생님은 멋진 솜씨로 뼈를 다시 맞추는데 성공했고 어린이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모습을 본 어린이의 부모는 '단아바드(고맙습니다)'란 말을 잊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환자들도 무척 놀라며 경이로워 했다.

등게스와리 마을의 환자 중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 많았다. 하루는 수자타아카데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했는데, 소아과 진료를 맡으신 교수님은 몰려드는 환자들도 무척 힘드셨을 텐데도 의료팀 전체에 힘을 불어주시고 무슨 일이든 앞서서 도와주시곤 했다. 순환기와 호흡기가 전문이신 교수님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소아환자들을 감별해 내서 수술을 권유하기도 하고,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린 환자들에게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또 의료봉사를 마친 저녁시간 후에는 감기몸살과 장질환에 시달려 고생한 몇몇 봉사단원들의 진료도 도맡으셨다. 약국장인 나는 쌓여 가는 진료용지에 고전하긴 했지만 이화승님(인도JTS 책임자)과 스텝 중의 한 분이셨던 이성룡님의 도움을 받고, 노력봉사가 먼저 끝난 대사협 학생들의 도움도 받으면서 즐겁게 봉사에 임할 수 있었다. 소아 환자가 많았던 만큼 소아용량의 약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성인기준으로 제조된 약을 일일이 갈고 부수는 일이 필요했고 또 약 봉지가 재래식이라 손으로 하나하나 접어야만 했기에 시간과 손길이 많이 필요했다. 그 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혼자 많은 고생했을 것이다. 사실, 봉사기간 동안에 교수님과 선생님들의 진료하는 바를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자 했던 바람은 약국장이라는 임무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약을 조제하면서 실수도 있었고 당황한 적도 여러번 있었다. 그렇지만 의료팀은 정말 중요한 일을 수행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의료봉사가 아니었다면 오랜 기간 고생했을 사람들과 어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불구가 됐을지도 모를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봉사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봉사를 하는 사람은 주는 기쁨을, 도움을 받는 사람은 받는 기쁨을 가지는 것처럼 양쪽이 함께 존재해야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계스와리의 불가촉천민을 위한 이번 의료 봉사활동은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선물을 안겨주었다. 의사가 되는 길에 서있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타인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봉사하며 사는 삶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삶 안에서 일상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지금 라선개발기금 모으기에 한창입니다

김애경 | 자원개발부 부장

북한돕기를 단순한 이웃돕기의 형식을 넘어서 '내나라를 내 손으로 건설하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라선개발비용 20억원 모으기'를 시작하지 석달이 되어갑니다.

지난 5월 말부터 8월 중순인 지금까지 라선 개발을 위해 동참하신 분들은 다양합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 살고 계시는 교포분들의 동참도 많았습니다. 어느 지역, 특정 분야, 일부 계층만 참가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함께 했다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특히 가족이 모두 동참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할머니는 손자, 며느리와 함께 후원하셨고,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라선 개발을 설명해서 후원을 얻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후원해 주신 어르신께서는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친구를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대신하겠다고 후원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부산에 살고 계신 교수님은 동료교수와 학생들에게, 울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변호사는 동료변호사와 친인척들에게 후원을 받으셨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은 같은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동참을 했고, 북한과 한국, 중국 등 지정학적인 이야기를 곁들여서 열심히 설명하신다는 해운대에 살고 계신 오정숙님 사례도 독특합니다. 일가친척들에게 안부전화도 하고, 라선 개발에 동참도 시키고, 일석이조 이상이라고 웃으면서 말씀해주십니다.

거리에서 후원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래에서 살고 계신 하경하님은 어려운 이들에게 저녁 올리는 마음으로 저녁시간에 모금을 한다고 합니다. 광주지역은 학생도 동참하여 '북한은 내나라 우리가 건설하자' 현수막을 걸고 모금을 했고, 마산은 1주일씩 또는 한 달씩 맡아 100일 동안 모금을 하고 있다고 정홍자님이 전하셨습니다.

물품 후원도 많은데 의류가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대구지역에서 차용백님은 체육복 100



여장을 받아오셨고, 아름다운 가게에서도 다섯 상자 이상의 의류를 지원해주셨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꾸준히 재활용 의류를 모으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라선 개발을 위해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울산에서 후원자를 50명 이상 모으고 계신

김용주님께 어떻게 주위 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지 여쭙어 보았습니다.

“처음에 ‘북한은 내나라, 우리가 건설하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1인당 10명의 후원자를 모으면 된다고 그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겠지 하며 한 달 정도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는 이상희님께서 벌써 10여명의 후원자를 소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후원자 모집에 너무 소홀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범류스님의 범문테이프를 다시 듣고 이번 일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긴 뒤 100명 정도는 후원자를 만들겠다는 원을 세웠습니다. 특히 울산지역의 보수적인 변호사들을 다 동참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때부터 호주머니에 후원신청서를 가지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업설명을 하였습니다. 또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고객이 있는 경우, 나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말고 굶어 죽어 가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하였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울산 서부로타리클럽 모임에서는 후원을 호소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로부터 후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국제로타리 3720지구 김철 총재와의 공식적인 모임이 있어 참석하였다가 ‘북한은 내나라, 우리가 건설하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총재께서 3720지구 전 로타리안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하여 그 방법을 연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변호사란 직책 때문에 과분한 칭찬을 들을 땐 마안한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또 수월하게 일들을 할 수 있기도 해서 변호사란 직책이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북한은 내나라 우리가 건설하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내 겨레의 일은 내가 앞장서서 한다는 생각으로 후원자로 참여하거나 주위에 알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과 정성들이 모여서 라선시 그리고 함경북도, 나아가 북한 전역에 희망의 빛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북한은 내나라 우리가 건설하자’ 국내외 후원 현황 (5/31-8/28)

지역분포	지역명	후원자수	후원금(약정금포함)
국 내	공 주	9명	850,000원
	광 주	27명	3,590,000원
	김 천	15명	810,000원
	대 구	307명	19,160,000원
	대 전	183명	26,809,091원
	동 래	298명	18,830,000원
	마 산	139명	10,136,000원
	서 울	975명	88,661,000원
	울 산	175명	23,100,000원
	익 산	3명	300,000원
	정 읍	4명	150,000원
	제 주	10명	550,000원
	제 천	25명	1,300,000원
	청 주	138명	8,931,000원
	해운대	243명	15,115,000원
해 외	방 콕	1명	116,000원
	뉴 욕	40명	7,672달러
	워싱턴	30명	2,138달러+100,000원
	LA	17명	1,015달러
	독 일	15명	2,350유로+152,060원
통 계	5/31~8/28	2,654명	218,660,151원+10,825달러+2,350유로

*JTS 본부나 지역법당으로 접수하지 않고 바로 은행으로 입금한 후원금은 포함되지 않았음

‘북한은 내나라, 우리가 건설하자’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 둘

라선개발기금 후원금을 접수하면서 JTS사무실에 날아든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미국 워싱턴에 살고 있는 일곱 살 김차민 어린이와 서울 이영주님입니다.

차민이가 모은 5달러



안녕하세요. 워싱턴의 김순영입니다.

금요일에 차민이네 가족 김태우(아빠), 한승희(엄마), 김차민(7살) 한테서 15불 수표가 왔습니다. 저희들(워싱턴 정도법당)이 보낸 북한 돕기 모금 안내문을 보고 각자 매달 5불씩 1년간 후원하기로 해서 첫 달 약정액 15불을 보낸다는 편지와 함께 왔습니다.

아빠, 엄마는 유학생이라서 각기 학교에서 매달 Research Assistant Fellowship(연구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그 중 5불씩을 매달 후원을 하기로 했는데, 엄마, 아빠가 후원을 한다고 하니 차민이도 후원을 하고 싶다고 하더랍니다.

차민이는 엄마, 아빠를 도와서 집안 일을 하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설거지를 도와주면 25센트를 받는데, 그 동전을 모아서 5불씩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5불을 그렇게 해서 모은 동전으로 북한돕기에 동참한다고 해서 차민이한테 동전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기특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 소식을 보냅니다.

이제 미국 JTS도 지속적인 홍보와 모금으로 JTS 정기 후원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주 특별한 선물

서울 정도법당의 이영주님은 늘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 분이 라선개발기금 모으기 후원자 10명을 다 모았노라 하며 JTS의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영주님이 모아온 열 명중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어느 곳에서 살고 있지는 지 모르는 친구 이명자.’

갈래머리 소녀시절 특별한 선물을 안겨주었던 소녀 이명자.’

이영주님의 백발 머리가 까맣던 소녀시절의 일입니다. 6·25후 휴전 때 대전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 시골집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배움이 그 정도면 된다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이었지만, 배움을 계속하고 싶다는 욕구는 쉽사리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자신을 볼 때마다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고등학교 진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우편체제도 아직 잡히지 않은 시절. 우편으로 발송된 선물이 있었으니, 중학교 친구인 이명자님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이영주님을 위해 입학원서를 사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북한 개발 후원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입학원서를 사서 보냈던 친구 이명자님이 생각이 났고, 내가 명자의 이름으로 북한 개발 후원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고맙고 그리운 이명자님과의 꿈같은 만남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조선불교연맹)에서 온 팩스 한통

불교 정토회 JTS 리사장 법륜스님, 사무국장 덕생선생 앞

리사장스님과 사무국장선생을 비롯한 귀 단체의 법우들에게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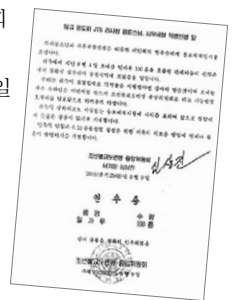
귀측에서 지난 8월 4일 보내준 밀가루 100톤을 조물련 관계자들이 신의주에서 정확히 접수하여 룡천지역에 보냈음을 알립니다.

우리는 귀측이 표명하대로 의약품을 지원한다면 감사히 받을 것이며 보내는 경우 수화인은 이번처럼 반드시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로 하고 가능한 도착지를 남포항으로 하여주기 바랍니다.

귀측의 정확하고도 사심 없는 동포애적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 평양에서 뜻 깊은 상봉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족의 담합과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귀측의 의로운 행업에 언제나 불은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심상진
2004(불기 2548)년 8월 9일



내 나라, 아프가니스탄!

양한석 | 아프가니스탄 자원봉사자

7월 중순경, 아프가니스탄의 일년 생활을 마치고 몸과 마음이 기진맥진한 채 그저 쉬고만 싶다는 생각을 하며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정도희의 배려로 문경에서 한달동안 깨달음의 장, 명상수련, 그리고 나눔의 장을 한 후에야 겨우 아프가니스탄의 생활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면서 사람들이 내게 아프가니스탄은 어땠냐고 물을 때 내가 겪었던 상황에서 받은 느낌, 경험, 그리고 그 문화속의 분위기를 말로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없음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내가 말로 전하는 이야기들도 그들에겐 결국은 TV에서 봤든, 책에서 읽든, 어떤 하나의 상상할 수도 없고 비현실적인 먼 나라 이야기 일뿐 그분들의 호기심이 바닥날 때 나의 이야기들도 끝내야하고 그들에겐 아프가니스탄이란 나라는 나의 이야기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나도 역시 한 장소를 떠나면서 그곳의 존재성이 희미해지고 그곳에서의 시간은 정지해버리는 편인데도 아직도 아프가니스탄은 내가 고개만 돌리면 보이는 가까운 나라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올림픽을 보면서 축구 8강 진출이나 금메달 수에 관심을 갖고 TV를 집중해서 보는 와중에 아프가니스탄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10월)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악화되는 치안 상황에 사람들은 죽어가기도 하고 모든 구호 단체들은 언젠가 반란군들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긴장감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테러사고가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럼 나고 거기서 익숙해진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덤덤하게 치안 보고를 읽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나라가 어떤 형태로 살아남는지 결정짓는 이 선거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저는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우리 JTS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 인터넷으로 날씨를 보듯 아프가니스탄 치안 보고를 봅니다. 예전과는 달리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반란군들은 구호단체같이 쉬운 목표물을 떠나 동맹군과 아프간 정부군, 경찰과 군인들을 목표로 공격을

할 만큼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로 했던 사업은 칸다하르군교 유목민 난민캠프에 시작한 4개의 텐트학교 운영인데 지난 6월, 저희와 가까이서 일을 도와주던 난민부 장관이 사살된 후 저희가 직접 방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현지에서 저희 이념을 이해하고 도와주겠다는 젊은 아프간 자원봉사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학교들을 방문했지만, 지금 텔리반 근거지로 알려지고 있는 그 시골동네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사업을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9월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저희는 이제 교육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 유목민 학교들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식교사훈련을 받지 못한 교사들과 주위에 아무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배우는 아이들은 외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학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서 학교운영이 안정돼야하는 상황에 최소한 10, 11월까지의 계속될 치안문제는 큰 타격이 됩니다. 다가오는 선거가 순조롭게 되든 말든 치안은 악화될 걸로 예측하고 많은 구호단체는 그 시기에 아프가니스탄을 잠시 비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토회에서 활동하기로 마음을 잡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비해서 모든 것이 너무 풍요로워 보이는 한국에서 이 풍요로움은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아프가니스탄처럼 가난한 나라의 희생으로 온 것이 아닌가하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살수 있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어떤 형태로 다가가야 하는 것인가 하고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현실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떠나온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앞날이 바로 내나라 걱정되듯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칸다하르 난민캠프에 권립한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과 이야기하는 양한석님(왼쪽)

캐나다교포인 양한석님은 대학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다 배낭여행중에 아프가니스탄에서 JTS를 만나 1년간 자원활동을 했다. 앞으로 JTS 모단체인 정토회에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난민캠프 교사들 수련을 진행하면서

이덕아 | 아프가니스탄 JTS 소장

내일 문구류와 겨울의류, 용품들을 분배하기 위해서 바미얀으로 떠나는 준비들을 하느라 늦은 시간인데도 다들 분주합니다. 벌써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침낭과 겨울옷 등도 챙겨야 합니다.

어제 막 칸다하르에서 올라온 우리들은 내일 떠나는 바미얀이 시원하다는 이 유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칸다하르는 무척이나 덥습니다. 모기와 더위로 인해 밤에 잠을 설치고 낮에도 무력해져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칸다하르에서 열성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아사드는 그동안 유엔과 국제 엔지오 등에서 일하면서 경상비와 인건비로 너무 많은 돈이 낭비되는 것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곳 외국인들이면 누구나 사용하는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도 없는 JTS는 활동가들의 복지를 위해서 돈을 너무 아낀다며 외국 단체 중에 이런 단체는 처음 본다고 투덜거리다가도 그런 점이 좋아 자원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편 계속해서 컴퓨터, 차량, 등등을 힘들 때 마다 요구하기도 하고 물건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몇십군데의 가게를 다니고 오토릭샤 타고 다니면서 일을 보고 문서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 등 찾아다니다 보니 이러다가 아마도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다며 웃습니다. 한번도 이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자기도 지금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22일 까지 4박5일 동안 판즈웨이 텐트학교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 했습니다. 이때는 칸다하르 난민캠프학교가 방학기간이라 교사들의 훈련기간으로는 아주 좋은 때이지요. 그들은 그나마 대부분 초등학교 2,3학년 출신으로 겨우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를 동안은 아사드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기본적인 교육방법에 대해서 이론 강의가 있었습니다. 초등

학교 학생들이 마냥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의를 듣는 진지한 교사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이런 교육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동작업으로 문구류 분배를 위한 포장작업을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 교사들이 귀찮거나 싫어하면 어쩌나 생각했지만 저녁 소감 나누기 시간에 이들이 공동작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공동으로 함께하는 기쁨과 소중함, 서로에 대한 믿음 등 많은 배움을 얻었고 기뻐한다는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다음 워크샵 때에도 이런 공동작업을 하면 좋겠다고, 캠프에서도 이런 공동 작업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들을 들으면서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소감문 발표를 통해 이들이 교사이긴 하지만 교육을 받은 경험이 하도 오래되었고, 더욱이 전쟁과 기근으로 슯한 고생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며칠동안의 이런 교육은 정말 새롭고 기분 좋은 일이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뿌듯함과 사명감을 동시에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운영에 대한 회의를 끝으로 전체일정을 마쳤습니다. 교사들은 이들이 4박 5일 동안 배운 것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고 부푼 기대를 갖고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9월 일정을 계획하면서 다음 교사들 워크샵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교사들 한사람 한사람 얼굴이 기억납니다. 모두 다 참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을 공부하는 일본인, PeaceNowKoreaJapan



몇 개월 전 피스보트(일본 NGO단체)로부터 우리 돈 1천 3백만원에 가까운 큰 액수를 통천역 폭발사고 지원성금으로 받은 적이 있다. 그 돈의 많은 부분은 피스보트에 참가하기로 했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 참가하지 못한 분이 환불받은 참가비 전

액을 용천둑기 성금으로 기탁해 주신 것이었다. 그렇게 큰마음을 내는 일본인이 있다니, 거기다가 북한의 실상까지 공부한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엔 얼마 전 읽은 '아리랑'이 떠오르며, 묘한 긴장과 함께 강한 호기심이 생겼다.

일본인으로 구성된 이 단체(PeaceNowKoreaJapan)가 지난 8월 8일 작년에 이어 한국을 두 번째 방문했다. 한국방문 주요일정은 한국의 원폭피해자와 만나 함께 위령제를 올리고, 종군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수요시위에 참가하고, JTS를 방문하여 북한현실을 인식하고 거리모금에 참가하고, 이후로는 이라크 전과 관련된 평화캠프와 8·15행사를 끝으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PeaceNowKoreaJapan은 일본의 8개의 NGO(피스보트, 아시안스파크, 재일코리아청년연합, 찬스, 시민스퀘어, 바디앤소울, 한국재일유스포럼, 우리바람)가 모여 작년 5월에 결성된 연합단체라고 한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중심으로 2,30대 젊은이들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조일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한일교류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일본인의 반감이 절정에 다다를 시점, 이라크전이 발발하자 PeaceNowKoreaJapan에서는 ‘어깨동무 이벤트’를 기획(9월 17일)했다고 한다. 700여명이 모여 촛불로 ‘어깨동무’라는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 이벤트가 마스크를 타고 ‘모두 함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따뜻한 마음을 일본열도에 전했다고 한다.

지난 8월 12일, PeaceNowKoreaJapan 회원 20여명이 JTS를 찾았다. 오전에 JTS에 대한 소개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듣고 난 후, 탈북자와 만나 북한의 현실에 대한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일본인들이 북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신기한 나로선 먼저 분위기를 살펴보았다. 사뭇 진지한 얼굴 하나하나에서, 작은 공책에 빠르게 기록하며 듣고 있는 모습에서, 그들의 진정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짧지 않은 2시간 반 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지는 가볍지 않은 질문들..

자리를 옮겨 명동에서 이어진 거리모금. ‘북한 어린이를 도읍시다!’라는 짧은 한국말을 익힌 그들은 한국 대학생(정토대학생회)과 팀을 이뤄 거리로 나섰다. 생각같이 쉽지는 않았지만 한결같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반응을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1시간가량 거리에서 모은 모금액은 410,340원(죽향 12만원 후원포함/저녁을 먹은 ‘죽향’의 주인 정명숙님은 JTS 후원인이다). 그들의 진심어린 마음이



명동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전해진 듯하다.

하루 동안 JTS와 함께한 이들의 소감을 잠깐 들어본다.

니케 : 북한의 경제적위기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았다. 일본에서 접했던 조총련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른 점이 있었다. 많은 공부가 되었다.

마이 : 탈북자의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온 말씀을 듣고 팔레스타인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북한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다. 가두모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고맙다.

다카시 : 북한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처음으로 실감하였다. 가두모금을 하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모든 문제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대학생들이 그릇을 물로 깨끗이 닦아먹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다.

우리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눈뜨고, 그것을 남이 아닌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PeaceNowKoreaJapan 회원들.

북한 문제는 가깝기로 따지면 오히려 우리문제일 터인데 그들보다 우리가 북한의 아픔에 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들 앞에 고개가 숙여진다.

세상엔 우리가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 없이 많은 단체가 제 각각의 목표와 필요성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도 그런 모임 중 하나일 뿐 했지만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이며, JTS 식구이다.

취재 · 정리 | 박경미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차대명 | 한양대 산업공학과 4학년

살면서 새로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종종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다. 이번 여름학기 사회봉사는 그런 면에서 나에게 적잖은 새로움이었다.

사실 난 정토회라는 이름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런 내가 이곳에서 짧지만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사회봉사 활동 후 떠나게 될 인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작용했었던 것 같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얼마 전 여행을 결심하고 이런 저런 준비를 하면서 내가 갈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달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내가 느끼고 배워야 할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중에 인터넷 뉴스를 뒤지다 얼마 전 있었던 가슴 아픈 사고를 접하게 되었다. 기사에는 우리와 한 핏줄인 북녘 동포들이 열차 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사고 당시의 참혹함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나의 눈길을 끄는 몇 장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다. 그 사진들에는 '용천 역 폭발사고 현장에 계속되는 온정의 손길'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어떤 단체에 대한 소개가 함께 있었다. JTS라는 약자로 소개된 그 단체는 용천 역 폭발 사고 후 누구 보다 먼저 국내에서의 모금활동을 전개했다고 소개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각종 생필품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알고 싶었다. 이리 저리 인터넷을 뒤지다 'Join Together Society' 라는 머리말로 소개된 사이트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사이트가 소개하는 단체에 대한 설명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북한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활동상을 기록한 여러 장의 사진과 글들은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중에 인도에서의 구호활동을 소개한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

었다. 단순히 배낭여행지로만 생각했던 인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냥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비록 여행 전까지 한달여의 시간밖에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배우고 가고 싶었다. 그래서 여름학기에 사회봉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짧은 시간이라 많은 경험을 하긴 힘들었지만 어디까지나 여러 나라에 구호 활동을 오랫동안 펼쳐온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큰 의미가 되었다. 봉사 활동 기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JTS가 설립한 인도의 수자타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봉사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 밝은 모습으로 당시를 회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봉사활동의 의미를 다시금 새길 수 있었다. 여행 자체에만 목적이 있었던 나에게 JTS는 새로운 경험과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지만 모든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 플러스로 남는 것은 아니다. 혼자만의 고민으로 얻은 결과보다는 여러 사람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며 얻은 경험이 훨씬 더 소중한 오랫동안 남게 된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 고민하고 도와가며 처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껏 나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는 일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 믿어 왔는데 그 것은 나의 크나큰 착각이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북한 동포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준 사람들의 인적 정보를 입력하는 일을 주로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텔레비전에 ARS를 통해 성금이 차곡차곡 쌓여 가는 모습을 볼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었다.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고 싶은 지까지 하나하나 정보를 입력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 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세상에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나의 이득만을 생각하며 어려운 이들을



사진 오른쪽부터 차대명, 유준, 정인호, 주해석 자원봉사자

보고도 모른 척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무엇보다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경험은 지금껏 내가 생각했던 세상에 대한 불신이 많은 부분 왜곡되어 있었다는 점을 깨달은 게 아닐까 싶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좀더 쉽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의 한 달간 여행은 아마 JTS에서의 경험덕택에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세상이 어렵다고들 한다. 실제로 주위에는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만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방관자로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함을 느꼈다. 그게 나를 위해서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실천을 통해 내가 변화하고 다른 이들이 변화하고, 또 세상이 변화한다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신규 후원자님의 목소리

*저희 JTS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후원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모아 보았습니다.
저희도 후원회원 여러분의 정성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세요!*

- *백진영님 :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자원봉사활동도 하겠습니다.
- *임익철님 : 앞으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 *김미정님 : 세상의 빛, 행동하는 양심 정토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김은숙님 : 좋은 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 *이선성님 :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행복해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돈이 좀 더 벌리면 조금이라도 더 후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뱅킹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박은형님 : 올 6월 초에 한 10일정도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습니다. 배낭여행을 위해 갔지만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배낭여행자가 여행 다니다 아픈 일은 흔한 일이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팠던 일은 제 마음 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선재 수련 진행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정토회 대학생회 선재 수련팀 42명이 동게스와리에서 수련과 워크 캠프를 진행하였다. 소라즈비가 배수로 공사, 유치원과 화장실과 연결되는 작은 다리, 두르가푸르와 자그디스푸르의 핸드펌프 플랫폼과 샤워실을 만들었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인도 봉사활동



한국대학사회봉사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 2차 인도해외봉사단이 7월 19일부터 8월 1일 까지 인도 동게스와리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총 25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의료, 교육, 공사, 목욕 등으로 분야를 나눠 진행되었다. 특히 의료팀은 7개 마을을 돌며 하루 130여명 이상의 환자를 보고, 간단한 수술과 치료를 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기술학교 학생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 시작

수자타 기술학교 학생 8명을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100일간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명상을 시작으로 전공과목, 마음 나누기, 노동학교 3학년은 영어, 힌디 보충수업, 봉사활동 등을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

●8월 15일 인도 독립기념일 행사

인도 독립기념일을 맞아 수자타아카데미, 기술·노동학교, 각 마을 유치원 등 1,000여명의 어린이들과 마을유지, 상주경찰이 함께 기념행진과 연극, 사물놀이 등 인도와 한국의 독립기념식을 성대히 치루었다.

●까나홀에 수자타 분교 신축공사 9월 시작 예정

산 넘어에서 수자타아카데미까지 등교시간이 1시간 이상인 마을 어린이 200여명을 대상으로 까나홀에 1, 2학년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분교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강성원, 김정준님 인도에 장기봉사활동 떠남

지난 겨울 정토대학생 인도선재수련에 참가했던 강성원, 김정준님이 1년간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장기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3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마치고, 각각 지난 7월 19일과 8월 15일 인도로 출국했다. 마을개발과 병원파트에 든든한 청년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되어 인도 JTS 사업은 한층 더 활기차게 진행될 전망이다.

북한지원사업

●용천 밀가루 100톤 식량추가지원

지난 4월 발생했던 룡천역 폭발사고의 긴급복구는 계속되고 있으나 계속 요청되는 것은 식량지원이다. JTS는 의약품과 이불, 의류, 밀가루 100톤 등 3차에 이르는 긴급지원에 이어 8월 27일 조선불교도연맹의 요청으로 부산항에서 밀가루 100톤을 추가지원 했다. JTS에서는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룡천둑기로 모은 성금으로 아직도 룡천지역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기를 보낼 계획이다.

아프가니스탄 지원 및 현지활동

●사카르다라 마을회관 공사 시작



8월 9일 ACRU와 마을회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기초파기 등의 기초작업을 시작했다. 공사에는 마을 사람과 학생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카르다라 다리공사는 상판작업을 위한 철근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작년에 완공한 리즈 다라는 난간작업이 남아있다. 또한 차프다라는 상판작업을 위한 철근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굴리켈은 기둥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칸다하르 교사 워크숍 진행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판트웨이 텐트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교육방법에 대한 이론강의와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어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바미안 지역 겨울용품 분배

문구류 및 겨울의류와 겨울용품을 분배하기 위해 운반작업을 진행했다. 트럭 6대로 비수드, 야카울랑, 바이안센타로 운반된 물품은 23일부터 2주간 분배될 예정이다.

국내소식

●서울애화학교 학생의 봉사활동



태양이 뜨겁던 8월 4일 성북구 미아 3동에 있는 서울애화학교 1학년 학생 9명과 박선미 선생님이 사무실을 찾았다.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자이지만 눈빛은 맑고 마냥 즐거워했다. 간단한 교육과 홍보 비디오를 선생님의 수화설명으로 보고, 돼지저금통에 스티커를 부치는 일을 하였다. 자신들도 어렵지만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려는 이들에게 참으로 많이 고마웠다.

●100일 릴레이모금 시작

한국제이티에스에서 정토회와 전국법당이 함께하는 100일 릴레이모금을 시작한다. 올해로 3회를 맞고 있는 100일 릴레이 모금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북한, 인도, 아프간 어린이를 돕고자 마련되었으며, 8월 9일 입식식을 시작으로 11월 15일까지 전국 9개 법당에서 100일 동안 진행된다.

●PeaceNowKoreaJapan JTS방문 및 거리모금

8월 12일 일본의 평화단체 PeaceNowKoreaJapan

이 작년에 이어 JTS를 방문했다.

한국을 이해하고 양국의 평화를 증진하는데 가교역할을 하고자 한국을 방문한 이들은 북한돕기 안내와, 탈북자와의 인터뷰, 정토대학 생희와 함께 북한어린이돕기 모금과 교류의 프로그램을 가졌고, 그간 일본 내에서 북한돕기를 하며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인도활동가 실무자, 수련차 귀국

인도에서 활동하는 김혜원(사무국), 김재령(마을개발), 이화승(인도 수자타아카데미 책임자), 이명희(지비카병원 책임자)이 8월 21일부터 3박4일 동안 진행되는 실무자수련에 참가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 김혜원님은 8월 17일 활동보고회를 가졌고, 다른 실무자도 활동보고회와 수련을 마친 뒤 9월초에 인도로 출국할 예정이다.

●가을학기 대학생 자원봉사자 교육

9월 18일 가을학기 대학생 자원봉사자 교육이 오전 10시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각자의 소개, 홍보 비디오 시청, 소감 나누기 등의 교육을 받고 각 부서에서 봉사할 예정이다. 당일 오후 12시부터는 지난 여름학기동안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만나 평가를 가질 예정이다.

●두북초등 폐교인수

울주군 두서면에 위치한 폐교인 두서초등학교 두북분교를 인수하였다.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을 만드는 지역문화복지센터의 역할을 하게 되며, 청소년수련과 봉사활동 및 두서면 노인들의 복리증진활동을 하게 된다.

●필리핀 방문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법륜 이사장님과 박지나 이사님이 필리핀 민다나오 JTS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가가후만, 까난, 키볼락, 무슬림지역인 라나오 말라위지역 등을 방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점검하였으며, 또 12월 대학생 워크캠프 진행을 위한 점검도 함께 하였다.

●물품후원

골프의류업체인 (주)한성에프아이(브랜드명:을포유)에서 59,017,000원상당의 의류 200여 박스를 후원해 주었다. 남방, 티셔츠, 바지 등 3,000여점과 행사에서 모아진 의류 9,000여 점을 보내주셨다. 비오는 날 인수하게 되었으며 손수 실어주시신 안용화 부장님과 김수중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금홍팬시에서는 정석봉부장님의 추진으로 노트와 필기류를 포함한 문구류 일체를 지원해 주셨다. 10,832,000원상당의 물품은 인도, 북한, 아프간, 필리핀 등을 방문할 때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상무이사님과 최석규 과장님이 직접 물건을 실어주셨다.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4년 5월21일부터 2004년 7월15일까지

북한어린이결연

김은숙 211-11931-11
 김상순 211-11932-11
 김삼규 211-11933-11
 김미정 211-11934-11
 김현연 211-11935-11
 문혜숙 211-11936-11
 안옥이 211-11937-11
 제갈경숙 211-11938-11
 한명식 211-11939-11
 김정선 211-11940-11
 남경콘크리트 211-11941-11
 남두경 211-11942-11
 박희영 211-11943-11
 조현관 211-11923-11
 이혜원 211-11945-11
 정우진 211-11946-11
 장혜진 211-11947-11
 홍숙향 211-11948-11
 공연주 211-11949-11
 김정원 211-11950-11
 유준동 211-11951-11
 이영희 211-11952-11
 강정숙 211-11953-11
 이주리 211-11954-11
 김여남 211-11955-11
 김창희 211-11956-11
 김정미 211-11957-11
 김태연 211-11962-11
 이현주 211-11963-11
 김희영 211-11964-11
 김정자 211-11965-11

장미경 211-11966-11
 이상민 211-01411-11
 설주환 211-11967-11
 최성호 211-11968-11
 유보영 211-11969-11

인도어린이결연

송정숙 111-03442-14
 김래경 111-03443-14
 김은미 111-03444-14
 최지영 111-03445-14
 신정철 111-03446-14
 강다연 111-03447-14
 김현진 111-03448-14
 김정숙 111-03449-14
 정중석 111-03450-14
 이정희 111-03451-14
 박철환 111-03452-14
 박상흠 111-03453-14
 이윤창 111-03454-14
 최보림 111-03455-14
 민평협 111-03456-14
 서울정도회모금 111-03457-14
 안미보 111-03458-14
 김갑용 111-03459-14
 박상아 111-03460-14
 승 천 111-03467-14
 이양옥 111-03461-14
 박선희 111-03462-14
 이세현 111-03463-14
 성주연 111-03464-14
 연홍석 111-03465-14

이유미 111-03466-14
 강민경 111-03468-14
 도종득 111-03469-14
 강정신 111-03471-14
 배웅식 111-03472-14
 최 식 111-03473-14
 최효정 111-03474-14
 김수미 111-03475-14
 임진이 111-03476-14
 이경미 111-03477-14
 정윤자 111-03478-14
 임경숙 111-03480-14
 임경희 111-03481-14
 황지나 111-03482-14
 이경준 111-03483-14
 임소영 111-03484-14
 강은정 111-03485-14
 홍정길 111-03486-14
 신진철 111-03488-14
 고옥순 111-03489-14
 정용균 111-03490-14
 조명순 111-03491-14
 장병대 111-03492-14
 김득자 111-03493-14
 강복웅 111-03494-14
 기선인 111-03495-14
 변세익 111-03496-14
 윤희숙 111-03497-14
 문성연 111-03498-14
 이원석 111-03499-14
 이점이 111-03500-14
 임유섭 111-03501-14
 박명자 111-03502-14

이상록 111-03503-14
 김혜련 111-03504-14
 박동원 111-03506-14
 장현숙 111-03508-14
 이화순 111-03509-14
 임영애 111-02717-14
 김미정 111-03510-14
 장주영 111-03511-14
 김승희 111-03512-14
 권대현 111-03513-14
 이원희 111-03514-14
 김수미 111-03515-14
 임성수 111-03516-14
 이재욱 111-03517-14
 한규석 111-03518-14
 서옥희 111-03519-14
 이영주 111-03520-14
 문정호 111-03521-14

아프가니스탄결연

조은숙 511-01093-15
 김연자 511-01094-15
 천수호 511-01095-15
 이원희 511-01096-15
 방미애 511-01097-15

인도결핵환자돕기

이상룡 311-00292-13

물품후원

2004년 6월 18일부터 2004년 8월 20일까지

1. 진운사 의류 2박스
2. 무주상 노트 3박스
3. (주)한성에프아이(올포유) 남방2,000장, 티셔츠 700장, 바지300장, 재활용의류9000장 / 200여 박스 총 59,017,000원 상당
4. 김홍길 스테플러칠침 1셋트, 연필 15, 모양자 2, 반원자 1
5. 성혜자 비누, 수건 1박스
6. 무주상 수건 25장
7. 무주상 재활용의류 92

8. 대림C 선물용볼펜 10
9. 권영기 노트 50권
10. (주)공흥팬시 노트류 720셋트, 필기류 480셋트, 기타문구팬시류 총10,832,000원 상당
11. 아름다운재단 재활용의류 5박스
12. 김중주 원단 2몽치
13. 대한불교조계종 법려사 체육복상하 22벌, 니트 20, 방풍조끼 20, 가방 1박스, 추리닝바지 212, 점퍼 20, 오버 100
14. 서울정도법당 재활용의류 50여 박스

북한개발 후원인 명단

2004년 5월21일부터 2004년 7월15일까지

북한개발후원금

강경화 5만 강동우,강필성 5만 강명자 5천 강석찬 5만 강시화 5만 강연화 1만 강영은 5만 강종진 5만 강준우,강술
잎 5만 고관숙 20만 고병관 5천 고정권 5천 고창영 5천 고창자 5만 고한영 5천 곽계신 5천 곽영숙 5천 곽영옥
10만 구포중학교1학년일동 25만 권민희 5만 권정규 5만 권찬기,채금순영가 10만 권해자 5천 권혁신 5만 기세환 5
만 김강용 3만 김경미 10만 김경민 5천 김경이 5천 김경자(3) 1만 김경하 5만 김경희(2) 2만 김경희(3) 5만 김근성
5만 김기표,김도훈 10만 김길재(2) 5천 김남수 5만 김동수 1만 김명자 5만 김병환,김향 100만 김문찬 5천 김미예
5만 김미형 5만 김민갑 10만 김민국 5천 김민이 5만 김병현,이상희,김현사 5만 김복희 5만 김부래 1만 김성길
50만 김성중 1만 김수조 5만 김수진 5만 김숙호 5천 김순란 5만 김순심 1만 김순연2 5만 김순연3 5만 김순호
130만 김승규 1만 김승희 5만 김애경,민병덕 10만 김양수 1만 김양주 5만 김연규 5만 김영분 1만5천 김옥자 5만
김옥희 5천 김원기 5만 김유남 5만 김은숙 5만 김의기 5천 김재현 5만 김재희(2) 5만 김점남 1만 김정숙 1만 김정
자 5천 김정진 5천 김중숙 5만 김중헌 5만 김진관 5만 김진욱 2만5천 김진홍 5천 김창희 5천 김태심 5만 김태환
5만 김하승 5만 김행자 5천 김현경 5만 김현숙 10만 김현주(7) 5만 김현호 5만 김혜경 2만 김희숙 5만 김희수 5
만 나노엔텍 5만 남두희,남병훈,박일선 5만 남정희 5천 남현진 5만 노경위 5천 노성환 5만 노연숙 5천 노재국 20
만 노정은 5만 도중호 5만 동국내화(주)마산 5만 류경희 5천 류현복 10만 류형관 5만 류호열 5만 류홍기 205만
문성호 5천 문성희 5천 문정호,문가륜,문서영 20만 문철주 1만 민경근 1만 민경를 5천 민관중 5만 민사현 5만 민
응기 5만 민흥준 5만 박경미 5만 박경선 1만 박경호 5천 박경화 5만 박귀숙 5만 박규석 6만 박금희 5만 박무임 5
만 박문선 5천 박문희 10만 박미정 5천 박봉자 5천 박선애 50만 박세돈 5만 박수완 5천 박숙자 1만 박이름,박태
진 10만 박영숙 5천 박영신 15만 박용석 1만 박용숙 5만 박은주 5천 박인숙 5만 박정선,박종식,문영숙 5만 박정식
16 5천 박정영 5만 박정윤 5천 박정호 5만 박정희 5천 박종규 1만 박종인 1만 박종현 5천 박준자 5만 박지영 1만
박찬교 5만 박창규 5천 박찬기 5만 백관수 1만 백만흠 5만 백수명 5만 백정자 1만 서보형 5만 서옥희 13만 서옥
희(보리도) 5만 서정미 1만 서호정 5만 석주영 5만 선곡초등학교 46만2900 성남중학교 5만 성미영 5천 서목희
10만 소금화 5만 손민수 5만 손재민 5만 손정선 5만 손태건 5만 송동홍 5만 송미경 5만 송복기 5천 송숙경 5만
신순영 1만 신지연 5만 신창현 30만 신홍규,신민식 10만 심경택영가 41만 심상선 1만 심성보 5천 심유현 5만 심
을택 5만 심재화 5천 안윤임 15만 안준은 5천 안태선,박종부 100만5천 양기수 5만 양미숙 3만 여래화 5만 여현주
5천 영정환 5천 예수살기공동체 8만 오선환 5만 오진옥 5천 와이티신 5만 유경덕 5만 유상록 5만 유지현 5만 유
화자 5천 유효순 11만6500 윤대환 5천 윤미영 5천 윤인숙 5만 윤정근 1만 윤정숙(2) 5만 윤주는 5만 윤학수 5만
윤형욱 5만 윤희남 5천 음미경 1만 이경열 5천 이계설 3만 이근태 6만 이대경 5만 이랑 5천 이민애 5천 이민정 5
만 이병철 5만 이봉애 5만 이상열 5천 이상열(정윤자 남편) 5만 이상자 5천 이석호 5천 이선우 5만 이선정 5만 이
성식 5천 이수근 5만 이수미 5만 이수영 5천 이숙기 5만 이시은 5천 이신일,배복선 10만 이연재 5만 이연주 5천
이영선 5만 이영주 50만5천 이영희 5만 이요예 200만 이원기 6만 이원석,이정금 1만 이유니 1만 이유갑 2만 이
윤경 5천 이은선 5만 이옥성,오애라 2만 이인선 6만 이인철 5천 이재익 5만 이재형 5만 이점만 5만 이정금 5천
이정옥 5만 이종애 5천 이지연 5만 이지훈 5천 이진숙 5천 이진우 5만 이찬규 5천 이춘연 5천 이태화 5만 이택
건,이정건 5만 이택지,정재덕 10만 이형지 10만 이향우 5만 이현배 1만 이현숙,이석호 5천 이형기 6만 이형례 5만 이
혜옥 5만 이혜진,이규홍,이영진,이현정 20만 이희란 5만 이희재 5만 일광사 5만 임순자 5만 임순자 5만 임양호,심을택 5만
임영애 5천 임정옥 5천 임중호 5만 임진희 5만 장선오 5만 장영애 5천 장은호 5만 장인경 5천 전은배 5천 정경희
1만 정계갑 5만 정계식 5만 정다원 5천 정동분 5천 정미경 1만 정미영 5만 정미영 1만 정미옥 5만1천 정보영,문수
경 10만 정봉주 5천 정순영(2) 5천 정순옥 5천 정순형 5천 정승호 5천 정승환,이동은 1만 정영실 5천 정윤희 5천
정유진(2),이경자 10만 정인호 5만 정일한 1만 정장채 5만 정주호 5천 정철환 5만 정혜훈 5천 정현복 5천 정현숙
10만 정형자 5천 정혜진(3) 5만 조경현 5만 조병수 5만 조석률 1만 조선혜 5천 조영선 5천 조옥분 5만 조용성 5
천 조용우 5천 조찬래 5만 조항순 5천 조현주 5만 조형현,이은미 1만 조호원 5만 조우성 5만 지선영 2만 진경옥
5천 진양수 5만 진인배 5천 차윤주 5천 차호영,차상호 10만 채영남 5만 천은정사 2만 청년유스포럼일본 22만
8540 최경란 5만 최광수 5만 최규정 5천 최근대 5만 최병훈 5만 최봉순 7만5천 최영미 5천 최영배 6만 최영일
5만 최영철 5만 최완옥 60만 최용석 5천 최용식 5만 최익봉,이은자 1만 최재순 5만 최정봉 10만 최정숙 10만 최
정신,최은영 1만 최홍,박순환 1만 추병우 6만 추사자,김정규 3만 추현재 6만 표현순 10만 하근수 1만5천 하해성 5

북한개별 후원인 명단

2004년 5월21일부터 2004년 7월15일까지

만 한기숙 1만 한명애 5만 한명희 5만 한미향 1만 한순임 5천 한형정, 원도연 1만 허명지 1만 허범수 1만5천 허성필 5만 허애영 5천 허연화 50만 허영숙(2) 5만 허우평, 허도용, 김생길 5천 허운정 5만 허재인 5만 현성훈 5천 현희련 50만 홍성문 5만 홍순진가족 6만 홍순규 1만 홍재식 5천 홍재향 5만 홍정원, 홍복선 5만 홍주영 5만 홍철희 5만 홍희숙 5만 황경애 5천 황순자 6만 황혜연 5천 박선희 5천 권재식 3만 윤이나 5만 홍금운 5천 안재형 5만 황문헌 5십만 최은숙 1만 민한식 5만 김재영 5만 김도현 5만 김기춘 5천 이한숙 5천 김지현 5천 임흥식 5천 이원근 5천 김경식 5만 정상봉 5만 성지은 5만 최수진 5만 최성진 5만 이양기 5만 이소정 5만 김우남 5만 윤정원 5만 채정혜 5만 윤승욱 5만 이윤수 2십만 이병희 5천 김상진 5천 김애자 5천 배중환 5만 임금미 6만 조진만 5만 조미영 5만 김영수 5만 이수철 5만 김혜경 2만 박선희 1십만 감미영 5천 고승선 5천 김미순 5천 최영일 5천 최은주 5천 박병희 5천 김숙 5천 임한결 5천 이경숙 5천 류준열 5천 유인숙 5천 최향숙 5천 장부희 5천 박화만 5천 성연아 5천 이윤아 5천 조지현 5천 백중성 5천 임수진 5천 이지혜 5천 이상순 5천 김나량 5천 심명희 5천 이현주 5천 이현주 5천 기정아 5천 이영조 1만 김지은 1만 이완성 5만 박선미 5천 임한숙 5천 정비용 2만 윤은숙 1십2만 곽인희 3만 민인숙 2만 김승주 1만 김연화영가 5천 강방남영가 5천 송혜호영가 5천 김연수영가 5천 송정호영가 5천 이흥재영가 5천 김응연영가 5천 윤표 5만 윤빈 5만 익명 5만 김인정 1만 정동호 1만 최윤정 5만 이정혜 5만 김홍숙 5만 이규환 5만 윤금자 5만 장선경 1만 장우호 1만 강복녀 1만 최은석 1만 최해담 1만 최해년 5만 이상재 5만 조성윤 5만 임강렬 5천 양승일 1십만 박영기 1만 김홍범 5십만 봉금례 5만 서춘지 5만 김환분 5만 배상열 5만 유순호 2 십만 주선에 5만 김낙춘 5만 원중우 5만 배영주 5만 배건영 3십만 한영옥 5만 홍인영 1만 김경숙 5십만 김옥정 5 천 김향숙 5만 서문선 5만 김숙경 5만 이성식 5천 이종하 5만 장순봉 1만 장인식 1만 최궁덕 1만 이은주 1만 황보 영 1십만 김태정 5만 이상균 2만 노숙자 5천 이길용 5천 백상미 5만 최양희 5십만 김태균 2십5만 송희숙 5만 김 현호 5만 김중수 1십5만 신순희 2만 이규태외 5만 허영식 1만 김경택 1십5만 김태선 1십5만 김명진 5만 김애경 1 만 조홍식 5천 소금순 5천 민의식 5천 홍상숙 5천 김영득 5천 공순분 5천 민지혜 5천 민승기 5천 김명옥 1만 이 효정 5만 김재대 1십5만 진정연 1백만 김선경 5만 황병순 1만 조경자 2만 서인영 1만 경민주 3만 정혜연 1만 박선 기 5만 임재성 5천 김묘길 3만 김영숙 5천 이경중 5천 서문숙 5천 김기섭 5천 이정희 5천 안옥숙 5천 오중석 5 천 이진성 5천 이진환 5천 정인조 5천 정찬호 5천 김학재 5천 권윤선 5천 손옥순 5천 배나형 5천 고려훈 5만 김민영 5만원 권소윤 5십만원 이계일 55만원 김경태 25만원 김상태 1십만원 김익숙 5만원 김중선 1만원 조민헌 5 만원 김정숙 5십만원 김중복 5십만원 이도수 5십만원 김수원 5만원 김재훈 3만원 이현형 5만원 이은정 5만원 이 현정 5만원 이은우 5만원 우근희 5만원 김기태 5만원 김기석 5만원 금강월 5만원 신윤정 5만원 김시환 5만원 신 명숙 5만원 유재현 3십만원 유재한 2십만원 원유진 5만원 원치환 5만원 권미영 5만원 정재훈 5만원 대전청정희 (윤석관, 김정순, 박선자, 김이순, 이계순, 조정순, 송미자, 신복남, 안기옥, 유근희) 10명 2,084,091원 한기화 1십만원 신복 임 5만원 남해경 5천원 한정자 1십만원 박영민 13만원 김순돌 5만원 김병찬 5천원 정초분 5만원 윤영희, 최병연, 최 진실가족 5만원 광복준 5만원 박주현 5만원 김보미 6백만원, 성미영 5천원 김애자(울산) 5만원 길래현 5만원 배세 화 5만원 강불희 5만원 김경희(울산) 5만원 김진주 5만원 박해자 5만원 김정선 20만원 김영옥 5만원 김만태 5만 원 오재규 5만원 유효열 5만원 안혜영 5천원 백만조 5천원 박미성 5만원 장윤점 5만원 안태춘 5만원 최기일 5만 원 정승현 5만원 최재선 5천원 최재원 5천원 해운초등학교 2-1 어머니회 3만원 유애경 2만5천원 이기목 10만원 이열우 6만원 염유혜 5만원 박순분 5만원 강정숙 5천원 김춘곤 5만원 김기순 1만원 조협 10만원 윤종순 5만원 하 경화 5만원 최용기 3만원 안미숙 30만원 심학순 1만원 서창덕 5만원 이봉휘 5만원 이지수 5만원 송부순 5만원 오 민주 5만원 이동한 5만원 김훈국 5만원 김정환 3만원 현일출 10만원 임건숙 1만5천원 배의인 5만원 안동환 10만 원 김용주 5만원 김한상 5만원 김미숙 5만원 김지수 5만원 김지은 5만원 박산 5만원 정동석 5만원 송영규 1만원 채효순 10만원 김지원 1만원 이창우 10만원 최혜정 5천원 이효중 5만원 김대원 5만원 이정민 5천원 주유미 5만원 고춘복 50만원 김중숙 5천원 이영지 5만원 김광태 1만원 지연후 1만원 차선우 5천원 전해영 5천원 전수복 5천원, 김호미 5천원 전성호 5천원 김봉덕 5천원 김정현 5천원 김익현 5천원 윤정숙 5천원 조정화 5만원 이정대 5천원 조용생 5만원 강중호 10만원 정남순 10만원 오영민 5천원 양영민 5천원, 김채욱 1만원 허성준 5만원 허성호 5만 원 금경향 5천원 박지월수 5천원 구수성 5천원 최단희 2만원 박향숙 5만원 송지웅 5만원 최문숙 2만원 원문스님 5만원 연날리기팀 8만원 김건보 5천원 박운기 5천원 박운기 5천원 정인권 50만원 박선영 5만원 박성민 5만원 양 석준 5만원 김지연 5천원 손미숙 5천원 이춘영 5만원 김형자 5만원 김원태 5만원 강문영 5만원 진영미 5만원 노 승용 10만원 강호영 5만원 김진숙 5만원 박지선 5만원 김용국 5만원 김희곤 5만원 황선정 5천원 황재홍 5천원 황 희정 5천원 김정철 1만원 문철주 1만원 박호연 5천원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대구

고광훈 36,260 공중임 25,380 권영순 27,580 김나영 2,200 김미희 9,680 김민정 6,120 김소정선생님 제자(공헌정 2,170 김 술 3,350 김경민 1,820 김지은 2,630 김형욱 180 김해정 360 김혜진 350 무명 1,000 무명 2,230 무명 2,730 문도연 900 박기우 200 박은영 2,040 서의량 520 손세림 620 손효지 14,070 유재원 2,410 이상준 700 이현록 730 임중환 1,850 임진성 4,230 정윤재 450 조용준 1,540 최희은 4,970 한승우 1,400 황환신(460 이기연 110) 김애나 1,100 김영옥 4,190 김은영 1,620 김혜영 5,260 꽃말이선생님 3,010 대구한의대 도서관 28,020 대운광 20,610 무명 4,700 무명 12,350 무명 6,090 무명 6,300 무명 3건 13,580 박나주 50,200 서유진 5,490 손경희(수미광) 86,100 시지는 1,370 신승현 1,980 신영애 27,940 안재식 1,350 엄옥례 10,490 유현철 1,530 이미경 26,280 이미윤 16,380 이선현 5,590 이숙수 16,750 이재광 6,270 이재우 4,000 이준호 24,490 전병찬 24,700 정선화 15,690 정예선 20,380 정유진 23,910 정평화 26,040 조수현 12,280 지명자 35,940 진달래 2,710 진미숙선생님 제자 17명 227,730 진미숙선생님 제자 34명 175,120 진미숙선생님 제자 43명 205,170 칠보우리아 30,650

대전

권선영 26,870 권오환 11,310 김만정 4,510 김소연 16,530 김용근 7,460 김태룡 27,910 김현숙 4,190 김희정 11,070 무명 10,000 무명 9,000 무명 8,960 무명 3,450 무명 3,070 무명 15,490 무명 6,600 무명 5,130 무명 4,060 무명 1,700 무명 3,080 무명 4,190 박영민 31,990 안근옥 2,700 오석순 29,760 오화영 22,310 유인자 45,880 윤영희 24,010 이창선 22,660 이정희 20,980 전민우 14,020 정경주 32,960 정봉진 24,410 황소집 2,980

마산

김동재 37,350 나경진 19,740 류승우 12,760 무명 18,970 무명 14,020 무명 11,290 무명 8,600 무명 21,240 무명 8,220 무명 8,580 무명 6건 63,690 박임남 7,400 성현철(5,670 정덕연 10,080 조신아 13,430 천영희 20,460 최나라 35,250 홍소아라 44,000 황용제 14,470

동래

김미란 8,980 김민욱 28,760 김은진 11,080 김인혁 21,120 관음행 33,380 구자성 48,260 근혜어머니 40,000 김경미 5,000 김경미 12,420 김경희 33,280 김남순 36,000 김민지(10,990 김수현 8,230 김순옥 21,090 김인혜 10,220 나영숙 25,000 무명 19,400 무명 33,060 무명 78,350 무명 24,020 무명 16,810 무명 30,200 무명 10,600 문성연 27,000 박소정 4,540 박신영 12,110 박점숙 23,560 박성숙 20,010 배영훈 3,330 범문주 271,710 범문주 119,370 변혜화 12,550 서정미 33,900 서창초등 33,500 심지혜 160,000 심형택 23,900 안혜원 11,070 양고는 25,900 엄자석 26,710 오원순 21,090 윤정아 24,700 이기숙 6,350 이미선 20,240 이윤성 3,320 이윤성 3,000 이창산 13,030 이진아 16,690 이혜일 19,550 임재홍 9,650 정나영 12,330 정미경 8,930 정원선 2,380 정태은영(가 9,640 정태은영(가 9,800 정태은영(가 9,610 최광수 37,450 최광수 36,520 한승희 7,540 허성호 60,040 황말희 15,690

청주

각해정 31,610 권여영 17,710 김미정 15,890 민경률 21,650 민안

자 25,110 박기순(26,950 실상화 24,030 오혁진 70,220 유동연 26,620 이지혜 16,220 최대영 22,970 홍미숙 10,420

제주

고진수 26,690 이재호 24,500 이철수 27,210 제주세무서소속세과 20,350 현소정 31,400

울산

김병은 25,520 김분옥,민경후 23,320 김설화 54,700 김영은 16,620 김용명 9,980 김용원(34,000 김용주 92,810 김일윤 6,430 김주현 6,470 김현정 3,780 무명 5,970 무명 7,760 무명 26,060 무명 26,400 박선영 24,230 박성연 18,770 박찬호 26,410 손승희 40,380 여민숙 27,220 이경선 19,940 이수현 19,260 이정주 35,580 임영민 9,320 전정희 5,820 최동희 27,080 최성자 49,750 최옥자 11,600 한 전 16,420 홍범식 20,760

서울

가선민 7,610 강민영 5,130 강병경심 29,730 강수란 2,040 강순삼 131,470 강윤성 8,170 강지선 3,600 권영우 4,640 권준호 1,820 고경희 14,220 고명향(나모 64,000 고은비(10,580 고지현 16,460 고춘자 11,990 기기열 4,340 김나영 3,190 김다혜 1,190 김다희 4,510 김도영 23,310 김동근 2,490 김보초 5,840 김명진 4,670 김명철 34,400 김미나 2,010 김미영 16,460 김미희 1,720 김보라 2,400 김보배 28,140 김보배 19,040 김보배 19,020 김봉순 60 김부준 1,200 김상순 77,660 김상아 3,880 김성연 390 김선희 4,700 김실향 18,270 김성철 4,000 김성훈 32,650 김애자 26,690 김애숙 26,210 김명실 1,340 김명주 11,030 김옥순 1,900 김용순 23,790 김용순 33,110 김용준 660 김원진 980 김유진 34,600 김은경(410 김일숙 100 김정규(17,700 김장민 15,050 김정호 15,420 김정희(130 김주희 2,970 김준용 23,860 김지연 5,500 김지은 2,160 김지은 17,460 김철환 9,820 김춘하 1,530 김태균 15,640 김태준 20,490 김태훈 5,510 김한솔 2,010 김현희 1,870 김현호 23,070 김혜숙 470 김혜연 1,490 김홍익 6,190 김훈 4,400 노선혜 29,980 노선혜 43,100 라하나 5,940 류연철,규희 15,530 무명 5,510 무명 1,500 무명 2,430 무명 26,940 무명 17,490 무명 10,840 무명 3,930 무명 7,310 무명 160 무명 370 무명 500 무명 1,070 무명 24,900 무명 33,120 무명 12,700 무명 530 무명 9,670 무명 35,820 무명 33,350 무명 450 무명 1,300 무명 1,200 무명 800 무명 2,300 무명 4,240 무명 1,900 무명 2,150 무명 4,320 무명 1,000 무명 18,050 무명 9,210 무명 320 무명 340 무명 24,620 무명 6,040 무명 13,360 무명 26,350 무명 21,100 무명 35,680 무명 42,920 무명 55,160 무명 19,530 무명 1,550 무명 130 무명 1,000 무명 1,400 무명 12,860 무명 31,190 무명 100 무명 1,000 무명 8,690 무명 22,020 무명 1,000 무명 39,060 무명 66,770 무명 6,220 무명 24,070 무명 2,800 무명 60 무명 120 무명 1,500 무명 140 무명 6,060 무명 2,250 무명 35,300 무명 1,090 무명 1,510 무명 4,400 무명 4,520 무명 2,610 무명 34,330 무명 2,750 무명 2,600 무명 3,990 무명 27,700 무명 4,680 무명 1,400 무명 1,800 무명 28,580 무명 100 무명 320 무명 220 무명 1,260 무명 3,720 무명 160 무명 5,790 무명 2,750 무명 17,380 무명 560 무명 47,510 무명 10,510 무명 19,130 무명 1,710 무명 510 무명 500 무명 520 무명 1,900 무명 650 무명 29,910 무명 200 무명 800 무명 2,900 무명 570 무명 31,590 무명 4,670 무명 1,000 정재원 1,500 문병권(1,700 문한울 3,800 모당,고불 20,650 박경원 950 박기석 10,520 박기석

통일돼지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4,700 박동만 26,020 박명기 8,540 박명진 1,800 박명화 2,060 박 신 17,900 박삼규 3,490 박상민 4,590 박서혜 16,610 박선화 4,890 박성리일준 3,300 박아민 6,530 박옥순 60,000 박영애 1,000 박영휴 101,420 박은혜 2,830 박이서로 20,450 박정수 2,930 박정우 21,840 박정철 5,190 박정훈 14,700 박주현 1,030 박지연 15,130 박춘호, 최남순 1,500 박한별 3,220 박현우 3,210 박해경 72,510 박해중 170,000 반진영 8,840 방영숙 12,000 배규범 22,170 배정환 20,650 배재현 2,000 백영화 1,000 백지숙 4,140 부산스님 57,570 서수영 1,970 서준호 13,520 서지우 1,340 서현정 1,100 선병호 27,720 설용수 4,790 손민학 3,530 손정숙 25,000 손옥귀 890 송다영 5,230 송지철 160 신명숙 4,570 신영재 5,710 신옥한 690 송영희 27,500 송예준 9,710 안정미 2,720 안정현, 주현 9,010 안주환 2,610 안승수 22,140 안희진 21,760 양명숙 14,370 양소정 4,700 양용모 6,090 여백순 50,000 여현주 4,060 여형주 27,450 오금실 27,120 오분옥 1,000 오정민 18,580 유아영 15,790 우정 10,000 윤형근 16,100 원주연 6,780 유경덕 18,250 유미영 34,550 유성현 31,740 유신열 2,000 유정희 2,190 윤상모 3,690 윤선재 22,080 윤소정 2,560 윤정희 23,170 원필재 570 윤은영 1,590 윤인혜 31,550 윤찬남 1,020 홍화선원 31,800 은하영 4,420 이강민 11,030 이광성 17,790 이기호 3,470 이기영 2,570 이동민 27,060 이동주 42,180 이미영 3,670 이민욱 2,260 이보리 25,250 이복근, 이순녀 3,000 이상민 49,910 이상아 4,540 이상아 3,190 이상준 2,420 이상준 14,650 이상희 6,550 이석철 2,400 이성욱 6,190 이성희 1,000 이세영 2,030 이소정 31,100 이순혜 1,170 이신화 680 이슬 1,660 이승기 37,690 이승진 1,760 이영란 2000 이영래 6,610 이영애 1,400 이예민 8,360 이원홍 7,300 이은철 1,000 이정진 27,030 이정민 124,350 이정순 7,740 이정희 2,000 이정희 1,000 이재영 1,160 이주서 3,350 이주혜 21,570 이재원 7,800 이철근 2,000 이철진 1,000 이택진 15,920 이하늘 6,220 이학송 97,270 이혜련 5,080 이희병 2,340 인 영 12,940 임다영 3,650 임병두 1,250 임소현 3,670 임숙이 44,280 임양호 37,060 장근영 9,190 장명화 20,990 장덕자 13,960 장명희 17,730 장서호 32,860 정소희 9,670 장신실 790 장 옥 13,340 정은희 8,370 정준호 2,940 전경아 11,850 정윤환 28,700 정혜윤 17,570 전대훈 3,450 전부선 500 전영숙 1,030 전예은 2,780 전인숙 19,940 전편구 6,410 전효림 2,180 정금실 650 정기문 30,000 정다은 12,560 정미영 31,100 정세혁 5,720 정인복 27,970 정진희 2,710 정현영 3,220 정형진 1,860 정혜란 100,000 정효은 4600 정홍수 20,570 조병근 3,710 조성지 2,650 조유나 4,050 조은비 2,080 조은아 4,140 조재영 1,760 조정휘 23,490 조준상 4,850 주은지 13,850 지수아 1,930 진명숙 15,000 채금정, 류상엽 11,330 채정혜 33,250 천수경 103,000 최영

숙, 정연순 1,430 최봉희 4,810 최성호 14,630 최영미 1,020 최요한 2,720 최원중 59,230 최유진 3,960 최윤성 6,580 최윤경 6,140 최은지 1,960 최정연 50,390 최광성 8,380 최효진 6,730 하지혜 3,270 한준호 2,920 한현수 11,930 한혜자 48,520 허병식 900 허수진 6,060 허연실 1,000 허재영 14,710 허선 2,890 홍광아 6,090 홍미진 14,130 황동백 5,230 황우연 4,320 황정현 6,490 황은순 25,410 LG25서초위원장 16,710

● 해운대

강소담 13,600 권규내 20,080 권정숙 12,400 김경애 12,980 김동명 3,040 김두자 21,450 김미숙 22,890 김미자 7,650 김선화 5,950 김성자 5,130 김영출 40,330 김익현 4,420 김익현 10,650 김재욱 26,850 김정선 24,040 김중만 7,000 김지은 18,270 김태운 3,160 김홍서 16,980 노민경, 김익경, 이정희, 신진화, 무명 14명 88,220 녹십자 김홍순 34,080 녹십자 안락지사 19,610 녹십자 연제지사 31,950 대원초등학교 2-7 10,000 대웅초등 문서영, 문가륜 65,080 무명 30,350 무명 6,500 무명 19,090 무명 15,470 무명 23,580 무명 13,090 무명 6,950 무명 6,530 무명 10,030 무명 22,870 무명 20,810 무명 17,170 무명 16,690 무명 1,550 무명 2,600 무명 68,170 무명 4,940 무명 25,310 무명 4,180 무명 4,010 무명 19,890 무명 29,930 무명 25,400 문은진 31,100 민인수 24,550 박고숙 20,090 박동원 8,900 박영자 3,780 박분선 18,000 박재호 38,900 박정민 78,000 박정필 40,750 박지숙 27,000 박지용 20,210 박해자 2,800 박현정 6,040 박현정 3,430 박혜원 10,000 박호연 34,320 방광자 53,960 방현 25,580 서중우 23,340 석수정 6,540 선강행 39,800 손아람, 손아라 46,740 송인자 29,790 수민, 정민, 강민 11,150 신순원 17,860 신순원 24,530 안소영 10,890 안정자 25,440 안그름 21,040 오미혜 10,010 오미혜 13,690 오선타원 사우나 14,720 오수복 31,300 우경자 20,510 유정희 13,580 이경화 16,350 이경희 22,060 이동현 29,200 이동훈 24,720 이민규 19,140 이봉준 24,110 이상금 6,450 이수빈 4,840 이숙희 16,280 이숙우 40,600 이숙철 4,240 이영숙 29,120 이우금 6,210 이윤창 12,000 이정금 18,620 이지은 10,390 이형진 19,630 이혜옥 21,990 이효동 12,650 임정택 30,460 장일성 36,160 장태석 14,640 정두자 30,020 정광자 8,990 정란진 63,000 정란진 6,280 정소정, 박주연, 엄경민 18,900 정영목 7,180 정재희 12,000 정재희 20,520 조선아 4,870 조성우 2,200 조은, 조민 24,070 차신순원 24,400 차태순 23,280 차홍선 20,200 최병훈 23,780 최홍문 20,930 추한재 13,480 허미옥 2,460 허성란 18,940 허재영 15,120 현경희 22,680 현경희 16,990 현정연 21,120 황말희 24,050 황순옥 59,000

(해운대본당은 3월부터 7월까지 현황입니다)

* 북한어린이를 위해 통일돼지저금통에 사랑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거리모금 현황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대구 5,654,010 대전 567,310 동래 424,000 마산 2,467,150 서울 2,426,270 울산 135,550 청주 183,050 해운대 616,730

* 「라진·선봉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은 지면상의 이유로 다음호에 실습니다.